

다쓰다 자연공원

다쓰다 자연공원은 구마모토성 북동쪽에 있는 다이쇼지 절의 옛터에 위치합니다.

호소카와 가문의 구마모토번 초대 번주 호소카와 다다토시(1586-1641)가 1632 년에 구마모토번으로 이동하라는 명을 받기 전까지, 호소카와 가문은 구마모토번보다 규모가 작은 고쿠라번(지금의 후쿠오카현 동부)을 다스렸습니다. 고쿠라번에서 호소카와 가문이 선조들을 모셨던 다이쇼인이라는 사원은 번이 이동하면서 다다토시에 의해 구마모토에 새롭게 건설되었으며, 이후 다다토시의 아들인 미쓰나오에 의해 다이쇼지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원에는 아래 주요 인물 4 인의 영묘가 세워져 있습니다(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 호소카와 후지타카(1534-1610): 다다토시의 조부, 다다오키의 부
- 누마타 자코(1544-1618): 후지타카의 처
- 호소카와 다다오키(1563-1646): 고쿠라번의 번주, 다다토시의 부
- 호소카와 가라샤(1563-1600): 다다오키의 처

4 곳의 영묘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호소카와 가라샤의 영묘입니다. 1600 년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배했던 서군의 중심인물인 이시다 미쓰나리는 호소카와 다다오키의 아내 가라샤를 인질로 삼아 동군에 속해 있던 다다오키에게 동군을 배신하도록 계략을 꾸몄으나, 가라샤는 인질로 잡혀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37 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이 승리하면서, 1603 년부터 1867 년까지 이어지는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되었습니다. 가라샤는 자신의 비극적인 생애로 인해 역사 소설에서 인기 있는 등장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라샤가 출생했던 당시의 이름은 ‘다마’였으며, 가라샤는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붙여진 세례명입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로서의 가문(家紋)

2 개로 나누어진 영묘는 정면에는 배례를 올리는 하이텐(拜殿)이, 안쪽에는 다마야(사당)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방된 영묘의 문을 통해 실내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오륜탑을 볼 수 있습니다. 문과 벽, 쇠장식에는 중앙에 원을 두고 8 개의 작은 원으로 둘러싼 모양이 우주 천체를 의미한다고 알려진 가문(구요문)이 새겨져 있으며, 지붕 모퉁이에는 근사한 오니가와라(액막이로써 지붕 끝에 설치하는 기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소카와 가문의 묘 중에는 제 10 대 당주인 호소카와 나리시게(1755-1835)의 묘가 있습니다. 나리시게는 가문을 잇는 적자가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 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호소카와 가문의 분가(分家)에서 양자로 맞이한 인물이었습니다. 본래 호소카와 가문의 묘는 구마모토번의 초대 번주(다다토시)부터 지금의 기타오카 자연공원이 위치한 묘계지 절의 옛터에 모셨는데, 나리시게의 묘가 묘계지 절이 아니라 이곳에 모셔진 이유는 본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호소카와 가문의 비호 아래 구마모토에서 만년을 보냈던 전설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1584-1645)를 모시는 석탑이 있습니다.

연못가의 다실

공원 안 연못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한 칸에 고쇼켄이라는 다실이 있습니다. 와라부키(짚을 사용하는 방식) 지붕과 얇은 나무판자를 겹겹이 얹은 처마가 특징적인 이 다실은 호소카와 다다오키(1563-1646)의 원그림을 바탕으로 1922 년에 지어졌습니다. 다다오키는 다도의 달인으로 유명한 센노 리큐(1522-1591)의 단 7 명 밖에 없었던 제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앞마당에 손 씻는 용으로 놓인 돌그릇은 다다오키가 교토에서 애용했으며 리큐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돌그릇을 애지중지했던 다다오키는 도쿠가와 쇼군의 명으로 2 년마다 구마모토번과 에도(도쿄)를 오갈 때 반드시 함께 가져갔다고 합니다.

착생식물로 뒤덮인 30m 높이의 삼나무 고목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이끼 정원은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마음을 사로잡을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찍이 멸종한 것으로 여겨졌던 치자나무와 비슷한 종류의 야에쿠치나시의 화단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야에쿠치나시는 이곳 다쓰타산에서만 자생하며, 6 월부터 7 월 초 사이에 개화합니다.